

# 강제야자·복장통제...전문대 인권침해 논란

### 자격증 취득 실적 경쟁에

### 광주·전남 대학가 만연

###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민원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알바도 해야 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광주·전남 대학가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복장과 언어까지도 통제하는 등 군대 문화나 교원교육과 같은 형태의 규율이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강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순천 모 대학에서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주류와 각을 잡는 제복 착용을 강요하는가 하면 학습 중 휴대전화까지 수거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해당 대학 응급구조학과에서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밤 10시까지 야간 학습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제보자가 이를 거부할 시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광주의 모 대학 임상병리과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 진정과 사실 조사가 이뤄져 즉각적인 시정이 이뤄졌다”며 “특히 자격증 시험이 있는 전문대학에선 비밀비재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야간자율학습 강제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악습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강제 야자학습’ 외에도 주류와 각을 잡는 제복 착용을 강요하고 학습 중 휴대전화 수거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다양한 인권 침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 학교 응급구조과에 입학하자마자 제복을 구입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학년들은 상의 뒷면에 다림질로 뺏뺏하게 ‘칼 주름’이라 불리는 3개의 선을 잡는 제복과 함께 구두를 신도록 강요받기도 한다”며 “안전이나 위생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도 제공하고, 선배 사이의 부당한 위계 문화도 꼬집었다.

이들은 또 재학생들이 돈을 모아 졸업생

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등 악습 시정도 촉구했다.

최근 목포 모 대학에서는 반지값 납부를 요구하는 학생회와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학가의 졸업 반지 선물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반지나 현금을 주는 형태로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예·체능계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광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

항법량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 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예쁘게 예쁘게...미용예술 경연 8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광주시장배 미용예술경기대회' 참가자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 전남 공립학교 장애인 교사 비율 전국 최하위

0.80%...전국 1.33% 밑돌아

전남지역 공립학교 장애인 교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공립 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전남 공립학교 장애인 교원 비율은 0.80%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인 1.33%를 크게 밑돌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0.61%, 2017년

0.69%, 지난해 1.10%로 매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남은 또 최근 마감한 2020학년도 유치원 교사 임용 시험 원서 접수에서도 지원자 미달 현상이 빚어지는 등 장애인 예비 교원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장애인 학생이 초·중·고 교육을 이수하고 교대, 사범대 등 예비 교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문·특수성을 지닌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남구, 내일 '아기사랑 인문학 태교 음악교실'

### 임산부의 날 맞아...청사 교육실

광주시 남구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아기사랑 인문학 태교 음악교실’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남구는 이번 행사에서 임신과 출산, 임산부를 위해 태교 테라피·태교음악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화 구연 지도사와 함께하는 ‘아이와 함께 듣는 그림책 이야기’를 비롯한 팬 플루트 연주 그룹 ‘텐타곤’의 조우상 대표가 무대에 올라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인문학 태교 음악을 들려준다.

행사장 주변에는 모자 보건사업을 홍보

하는 부스가 설치되며,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여성에게는 출산에 필요한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태교 음악교실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이 음악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임신 기간 10개월과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의 의미를 담아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3   달뜨기 16:06  
 해질 18:06   달지기 01:59

### 아침 기온 쌀쌀

아침 기온 큰폭으로 내려가 출했다.

광주	맑음	9/22	보성	맑음	7/21
목포	맑음	10/21	순천	맑음	9/23
여수	맑음	12/21	영광	맑음	7/20
나주	맑음	6/22	진도	맑음	11/20
완도	맑음	11/22	전주	맑음	7/21
구례	맑음	6/22	군산	맑음	7/20
강진	맑음	9/23	남원	맑음	5/22
해남	맑음	7/22	흑산도	맑음	14/19
장성	맑음	7/21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1.5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1.5

###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좋음
👤	미세먼지

### ◇ 물때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4:54	11:17	16:49	---
여수	00:48	06:34	12:31	19:12

### ◇ 주간 날씨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	☀️	☁️	☁️	☁️	☀️	☀️
11/23	13/25	15/25	15/22	12/21	11/21	10/22

## 전남대병원, 12일 '광주 심전도 심포지엄'

### 전국 유명 교수 대거 참석

전남대병원 '제15회 광주 심전도 심포지엄 GUESS'를 오는 12일 전남대의과대학 명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와 사단법인 우심 공동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심전도 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최신 지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와 토론의 장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남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의대·가톨릭대의대·경북의대

·충북의대·원광대의대·동국대의대·광주기독병원 등 전국의 유명 교수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한 학생, 전공의, 개원의, 간호사, 의료기사, 구급대원 등 심전도와 관련된 분야에 관계자들도 심포지엄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전 8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4부로 나누어지며, ▲1부 심전도 기원론 및 분석방법 ▲2부 심전도 파형 분석 ▲3부 심전도 울동 분석 ▲4부 심전도 정맥전도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의로 진행된다. /채희종 기자 chae@

## 광주소방, 119 허위신고 등 처벌 대폭 강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고의적으로 소방업무 방해하는 '119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19종합상황실에는 총 22만160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11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

는 없었지만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방본부는 소개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상습신고, 욕설·폭언 및 성희롱 시에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

# 호남동 대원빌딩 층별

##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